세계농업유산이 텅 빈 농촌에 사람을 불러들였다

지난 25일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찾은 200여명의 관광객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계단식 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다. 노토반도는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뒤 해마다 1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지역 농산물 판매가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 노토반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농업유산 전남의 '오래된 미래'

3 일본 노토반도

노토반도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근 9개 마을로 친환경 농업 확산
47곳의 민박집 체험프로그램 다양
농산물 판매 '불티'…年 1만명 방문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의 논에 심은 벼 여섯 포기를 수확하기 위해 도쿄에서 차로 8시간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인 노토반도를 보존하고, 전통농법을 배우기 위해 돈을 들여 논을 빌린 사람들이다.

지난 25일 오후 노토반도에는 평일인데도 200여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계단식 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이 계단식 논은 큰 것은 20평(66㎡), 작은 것은 모 여섯 포기를 심으면 차고 넘치는 정도다. 명색이 논이지만 산비탈에 조성되다 보니 세숫대야 크기의 작은 논도 많다.

이 계단식 논은 1770년대 도쿠가와 가문의 명으로 쌀의 생산량을 늘려야 했지만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해 해변의 산비탈을 깎아 만든 것이다. 3㎞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하기 때문에 논 곳곳에 우물을 만들어 물을 가둬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이곳의 특징이다.

현재는 396 농가가 4만51㎡의 계단식 논에서 4t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기계를 쓸 수 없어 모를 손으로 심는 것은 청산도 구들장논과 흡사하다. 또 고령화로 농사를 짓지 않는 논이 늘어나는 것도 청산도와 비슷한 실정이다.

하지만 세계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산도 구들장논과 이곳의 차이는 외지 사람들이 노는 땅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점이다. 청산도 구들장논 일부가 농사를 짓지 않아 논두렁이 무너져내리는 등 훼손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볼 때, 노토반도 계단식 논의 성공 사례는 곱씹어볼 만 하다.

이곳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 6월 국제농업식량기관(FAO)의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서부터다.

노토반도 인근의 노토쵸는 2010년 현재 고령화율(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6.9%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미즈호, 미야치 마을은 16개 마을 가운데 6곳의 고령화율이 절반을 넘는 초고령화 지역이다.

농사체험 모습.

세계농업유산 등재 후 이시카와 현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농사를 지을 사람을 찾는 작업이었다. 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기념관 등 건물부터 짓는 국내의 풍토와는 사뭇 달랐다.

현청은 대학과 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해 놀고 있는 논을 분양하기 시작했다. 세계농업유산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직접 짓겠다는 사람들이 몰려 현재는 300여개 단체가 계단식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계단식 논에는 농사를 짓는 단체나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 말뚝이 세워진 곳이 많다.

땅 주인은 이들로부터 일 년에 2만엔(한화 24만원 가량)을 받고, 평상시에 물 관리를 해주고 있다. 벼를 심고, 수확하는 것은 온전히 외지인들의 몫이다.

가장 작은 논이 벼 여섯 포기를 심을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먼 곳까지 와서 농사를 지어도 수확할 수 있는 쌀의 양은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정도로 소량이다.

하지만 세계농업유산인 논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유산을 보존한다는 자부심 때문에 해마다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시카와 현청 세가와 타로 세계농업유산 담당은 "옛 형태가 잘 보존돼 있고,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세계농업유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면서 "농사 체험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세계농업유산의 가장 큰 수확이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세계농업유산 효과'도 컸다. 현청에서 공식적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등재 후 노토반도 일대에서 생산된 쌀과 야채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한 해 관광객도 1만명이나 몰려들고 있다. 현청은 쌀 뿐아니라 '세계농업유산 노토반도 야채'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호텔과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농업유산 등재로 노토반도 일대에 친환경 농업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가장 큰 수확이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지은 쌀이 좋은 가격에 판매되는 모습을 지켜본 인근 마을의 농민들이 앞다퉈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현청에 따르면 노토반도 인근 8개 마을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1개 마을이 추가로 친환경 농업에 동참했다.

또 다양한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점도 이곳의 특징이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47곳의 민박을 운영하면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현청도 계단식 논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행사를 열고 있다. '세계농업유산 효과'는 입소문을 타고, 일본 각지의 수학여행단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성인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현청은 관광객의 방문이 뜸한 겨울에 맞춰 계단식 논둑에 3만개의 전구를 설치해 불을 밝히는 '빛의 축제'를 열고 있다. 올해는 오는 11월9일부터 2014년 3월 16일까지 제3회 축제가 열린다.

일본 농업협동조합(JA)과 현청은 노토반도의 쌀과 야채를 판매하고 있고, 지역 대학과 연계해 농업 전문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다.

또 자원봉사와 농업체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한 뒤 노토반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살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JA는 노토반도 농가와 소비자를 일 대 일로 연결시켜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노토반도 JA 야마자끼 이치모리 조합장은 "깨끗한 자연을 지키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세계농업유산의 가치이며 JA는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토반도 지킴이' 우타다 키이치로씨

"농업 그대로 보존해야 진정한 의미의 세계유산"

"세계농업유산이란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을 잘 지키고, 앞으로도 잘 지켜달라는 '세계의 요구'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시카와현 노토쵸 우타다 키이치로(64)씨는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노토반도의 계단식 논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친환경 농법과 전통 농가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다다미방 거실 한 가운데에 화로를 설치해 요리를 하는 일본 전통식 가옥을 그대로 민박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노토반도에서 생산된 쌀과 야채로 음식을 만들고 있다.

세계농업유산의 전통 가옥에서 잠을 자며, 현지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집 안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간장통, 솥, 농기구 등도 관광객들에게는 이색 볼거리다.

노토반도가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인근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한 해 1만명에 달하고, 직접 농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농사를 경험하려는 사람도 늘었다. 이에 노토쵸에만 13곳의 민박이 생겨나는 등 인근에만 47곳의 민박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민박의 가장 큰 특징은 외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는 것. 우타다씨의 민박에는 도쿄, 오사카, 이스라엘, 네팔 등 타지역과 해외에서 찾아온 손님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우타다씨는 "단순히 관광을 오는 게 아니라 농촌에서 농업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는 사람이 많다"면서 "가족 단위로 찾아와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소개했다.

노토반도가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마을이 관광 수입을 올리는 계기를 만든 셈이다.

전통 가옥을 손 본 그의 민박은 하루에 한 팀만 손님으로 받는다. 숙박료는 4~5명 한 팀에 1만9000엔(한화 23만여원)이며, 농사 체험비로 5000엔을 따로 받는다.

오타다씨는 노토반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에게 전통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 농업 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계농업유산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오래 있었던 것'이며, 이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찾고 전통 농법을 보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